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5년
2016년 10월 7일
음력 9월 7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203호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 가을밤에 울려 퍼지다.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종립 부산동해중학교에서 1,000여명 동참

경연부문 대상에 범어사 합창단 수상

▲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서원풍선날리기

불교총지종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가 10월 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총지종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봉행되었다.

행사가 진행되기 3시간 전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부산지역 불자, 총지종 교도 1,000명이 모여들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식전행사로 동해중학교 풍물패 '두드림'의 난타공연으로 화합과 통일을 서원하는 예술제의 서막을 열었다.

오후 6시에 시작된 제1부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영상 법어를 통해 "오늘날 우리사회의 큰 화두는 '소통과 화합'입니다. 계층과 지역 간의 소통과 화합뿐만이 아니라 세대와 학연, 혈연의 갈등과 대립, 반목을 허물어버리고 모두가 소통이 되는 것이 바로 화합을 위한 길이며, 그것이 통일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이(不二)사상이며, 일여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 예술제를 통해 우리 사회와 남북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서원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봉행사를 통해 "음악이란 여러 악기가 조화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게 합니다. 음악을 통하여 우리는 화합과 조화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 나와 남의 차별이 없는 동체대비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대자대비심을 가지고 생활 할 때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화합의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매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 공양하고 발원하여 차별과 반목이 없고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법향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행과 정진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과 화합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서원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음악이라는 공통주제아래 화합의 메시지가 널리 퍼져 북녘 동포에게도 희망의 등불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키워 나갈 때 비로소 통일과 화합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원만 성취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며 불교음악을 통해 사회 화합을 선도하는 총지종의 발전을 서원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동래구 국회의원 이진복의원은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오늘 이 무대를 통해 남북의 시급한 현안들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원합니다."음악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스님, 사무총장 정산스님, 수석부회장 무원스님,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 부회장 자인 스님, 부회장 고담 스님, 부회장 마나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스님, 사단법인 불국토 이사장 범산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스님, 전등사 주지 도문 스님, 태고종 부산 서부 종무원장 지만 스님, 수영구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법우 스님,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박대성 회장,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백명숙 회장, 박화자 부산불교합창단장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예술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다.

기사 2면으로 이어집니다
<관련화보 6, 7면>

아자관 명상 수행 등 일본 불교 체험

총지종 제2차 연수단 일본 불교 체험

▲ 곤고부지를 참배한 총지종 연수단

불교총지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차 총지종 일본 불교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주요 사원을 참배하고, 1박 2일간의 고야산 혜광원 쇼구보(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법상인 전수(부산 정각사 주교)를 단장으로 한 14명의 연수단은 일본 밀교의 중흥지인 와카야마 현 고야산을 참배하고, 곤고부지와 구카이 대사의 사당을 참배했다.

고야산 쇼쿠보(템플스테이) 사원중 의 하나인 혜광원에서 아자관 수행 체험과 사찰 요리 등 일본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문화도 함께했다.

나라의 호류지에서 담징이 벽화를 그렸다는 금당과 5층탑 그리고 동대사 대불도 참배했다.

교토의 청수사, 난젠지, 료안지 등을 방문하고 오사카로 돌아와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통리원은 앞으로도 스승들의 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괴산 수련원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더 할 예정이다.

지면안내

1면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성료
2면 김기자가 가다 '포항 수인사 효잔치'
6~7면 통일음악예술제 화보
8면 전수 일본연수 체험기
11면 서하보살 불교문학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김기자가 가다 포항 수인사 자원봉사 신행 단체 「수인회」

포항시 중앙동 《수인사와 함께하는 '꽃보다 할배 할배' 효 잔치》 주최

어르신 700여 명에게 점심 공양 제공

▲ 중앙동 효잔치에 동참한 수인사 신정회원들

▲ 즐거운 시간과 함께 공양을 하시는 어르신들

불교 총지종 포항 수인사(주교 안성 정사)자원봉사단은 9월 21일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인사와 함께하는 꽃보다 할배 할배 효 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 북구 중앙동 어르신 약 7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수인사는 자부담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쇠고기 국밥과 후식을 점심 공양으로 제공했다.

특히 지역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인정 받는 자리를 만들었다.

개회식에 앞서 위문공연에서 포항 자원봉사자 연합에서 나온 레크레이션 사회자와 섹소폰 연주자가 출연 경로잔치의 흥을 돋았다.

이외에도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자들은 평소 취미로 배운 사물놀이, 아코디언, 등을 공연하여 어르신들께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수인사 자원봉사단은 20여 명이 이번 봉사 활동에 참가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공양 준비는 한 번도 앉아서 쉴 틈이 없었다.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심과 내 부모를 대접한다는 효성스러운 정성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다.

요리의 전반을 지도한 박금화 교수는 "이런 보시의 공덕을 쌓는 기회를 주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인회는 소외당하는 이웃에게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수행의 장이라 생각합니다."며 "모두가 부처님의 법연으로 만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수인회 무료공양에 많은 분이 혜택을 보기를 서원합니다."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수인사 주교 안성 정사는 "수인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봉사 활동들을 앞으로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수인사는 찾아가는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사에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행하는 무료급식에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인사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경로잔치를 더 크게 열어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며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총지종 교화를 위한 최선의 방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 도의회 장두욱 부의장과 포항시 북구 황병한 구청장 및 지역 유지들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했다.

수인사는 사찰요리 강좌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신행 봉사 단체인 수인회의 활동으로 총지종 제2의 교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나눔의 보시를 실천하는 수인사의 행보를 주목 할 만하다.

또한 종단의 사회복지와도 연계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편 중의 하나이다.

후원문의: 포항 수인사 (054)247-7613

포항 수인사=통신원 김예선, 최정인,
사진 및 정리 김종열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간단한 개회식행사를 마치고는 부산불교방송 이명학 총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지종합창단 무대는 배해근 선생의 지휘로 총지종 금강합창단의 '향연'과 '바다새'로 무대의 첫 머리를 장식했다. 박건우 선생의 지휘로 총지종 부림합창단의 '팔상성도', '내가'두곡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김양희 선생의 지휘로 서울 마니합창단은 '임 마중 꽃', '울릉도 트위스트'로 무대의 열기를 더했다.

5인조 XTC 비보이 공연에 이어 김은숙 총지종 신정회 서울 경인 지회장이 경품 추첨에 참가해 50인치 컬러텔레비전의 주인공을 뽑았다.

2부에서는 부산 불자들이 참여하는 무대로 5개 지역 불교합창단이 참가하는 본격적인 합창 경연대회가 시작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를 위원장으로 탁상달 동해중학교 교장, 박운규 만다라합창단 지휘자, 김양희 마니합창단 지휘자, 김화정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가 심사를 했다.

첫무대는 부산 혜원정사 합창단(단장 김민경)이 올라 조창준 선생의 지휘로 '천의 손 천의 눈', '바램'두곡을 불렀다.

두 번째는 진각종 유가합창단(단장 정영희)이 양영승 선생의 지휘로 '관음 찬양계',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연주했다.

다음 무대는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단장 김복수)이 이지영 선생의 지휘로 '백팔염주',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했다. 네 번째는 관음사 환희합창단(단장 이옥인)이 정필윤 선생의 지휘로 '산사의 저녁', '그대 있는 곳 까지'를 마지막으로 범어사 합창단(단장 김진숙)이 배천종 선생의 지휘로 '두껍아','문지기 주제에 의한 합창'을 노래했다. 합창단이 등장 할 때 마다 각 사원의 주지 스님들이 격려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했다.

평양예술단의 화려한 무대로 잠시 열기를 더해간 예술제는 초대형 65인치 텔레비전 등 다양한 상품을 걸려있는 경품 추첨을 이번 예술제 운영위원장인 수현 정사가 추첨했다. 초대형 텔레비전의 주인공은 영천 단음사 신정회장인 황월분 보살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의 숙고를 거쳐 총지종 통리원장인 인선정사가 이번 예술제의 경연부문 시상을 했다. 영예의 대상에는 범어사 합창단이 수상하고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참석한 내빈들 전원이 동참한 통일 서원 풍선 날리기에 이어 참가자 전원이 무대로 올라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예술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가을 밤하늘을 수놓은 1,000여개의 서원 풍선으로 마감한 불교총지종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는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라는 슬로건을 부산 하늘에 오색 풍선으로 새기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불교 총지종은 앞으로도 사회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부산 동해중= 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관성사	인 선	9/20	20,000
	김병석	9/21	10,000
	김 * *	9/19	10,000
	황성녀	8/26	10,000
기 로	대 관	9/20	10,000
스 승	원 봉	9/22	5,000
	지선행	9/22	5,000
	밀공정	9/20	10,000
	법수원	9/20	10,000
	법지원	9/20	10,000
	불멸심	9/20	10,000
	사홍화	9/20	10,000
	상지화	9/20	10,000
	수증원	9/20	10,000
	선도원	9/20	10,000
	총지화	9/20	10,000
	안주화	9/20	10,000
	일성혜	9/20	10,000
	강순시	9/13	10,000
개천사	전세형	9/5	30,000
덕화사	이상욱	9/8	10,000
밀행사	무명씨	9/19	10,000
	신정회	8/8	100,000
밀인사	정정희	8/30	5,000
	이기상	9/12	10,000
	안옥진	9/12	10,000
	이성수	9/12	10,000
	박주연	9/12	10,000
	이수연	9/12	10,000
만보사	정덕순	8/29	10,000
벽룡사	양정현	9/12	10,000
	권혁민	9/12	10,000
	양지현	9/12	10,000
실보사	이순옥	9/13	10,000
실지사	박병성	9/20	20,000
수인사	정순득	9/19	10,000
	무명씨	8/31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8/31	10,000
	김지영	9/25	10,000
	강경화	8/28	10,000
	강경화	9/25	10,000
운천사	무명씨	9/21	20,000
	이영애	9/12	50,000
정각사	변순개	9/7	10,000
	탁상달	9/13	20,000
	조성화	9/25	10,000
지인사	승효제	9/22	10,000
	허성동	9/22	30,000
총지사	박정희	9/20	10,000
	법 등	9/5	30,000
	백지순	9/5	30,000
	손경옥	9/19	10,000
	신용도	9/20	10,000
혜정사	최영례	9/20	10,000
화음사	무명씨	8/31	10,000
	무명씨	9/2	10,000
흥국사	지 정	9/22	20,000
사원명무기명			
	박미경	9/19	10,000
	김갑선	9/19	10,000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원정대성사 열반 제36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9월 8일 서울 원정기념관 및 전국 사원에서 봉행

원정대성사 열반 제36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오는 9월 8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 '원정 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봉행됐다.

원정기념관에서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교정부장 법일 정사의 사회와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종조 멸도절 법어를 통해 "초창기 종단은 수행할 공간이 작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스승님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십리 밖에서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교화 열기는 대단하였습니다. 스승님들은 열의와 사명감으로 중생교화에 임했고 교도들은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닦아나가면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용맹정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생활수준이 풍요로워지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수양을 소홀히 여김에 따라 수행정신도 많이 퇴색되고, 불공을 하는 데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지심으로 염송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계율과 청정수행으로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바르게 행해야겠다"라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승직자 와 교도들에게 당부했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밀교의 역사를 다시 세우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에서 일직 손(孫)씨 가에서 탄생하셨다.

일찍이 한학을 익혀 사서삼경에 능통하셨고, 일제 강점 하에 고등 교육을 이수하시고,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셨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서 대성사께서는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밀교수행에 준제법을 도입하시고, 새로이 총지종을 입교개종 하면서 정통밀교종단을 이 땅에 우뚝 세우셨다.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비롯한 교상과 사상에서 완벽한 밀교를 확립하였다.

▲ 원정기념관에서 열린 원정대성사 열반 제36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통일음악예술제의 진정한 보시

부산 만다라 합창단 행사 지원 및 자원봉사

▲ 먹거리 마당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의 숨은 자원봉사가 행사의 원만한 진행과 성공을 이끌어냈다.

부산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록)는 이번 행사를 위해 대회 공연도 포기하고 공양처, 귀빈의전, 행사 지원, 먹거리 장터 등으로 나누어 지원봉사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예년과는 달리 부산지역 5개 합창단이 경연에 참가했다. 이들을 위한 저녁 공양과 음료수 등을 모두 준비 하였고, 귀빈들의 차 공양 및 떡 공양도 챙겨 냈다.

또한 먹거리 장터와 교도 가정 생산품 판매 등 장터도 열어, 행사장을 찾은 일반 불자들의 휴게 공간을 제공했다.

만다라 합창단 이상록 단장은 "무엇보다도 정각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 자원봉사가 먼저라 생각하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참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경남 교구의 행사에는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며 합창단의 새로운 봉사 모델을 제시했다.

경주지진 총지종 사원도 피해

건화사 기둥 공포 부분 균열 발생

지진 관측 이래 사상 최대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에는 민간 가옥과 종교시설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9월 12일 저녁 7시 44분경 진도 5.1을 시작으로 30분 뒤에는 5.8의 강진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해 피해는 속출했다. 일주일 뒤인 19일에도 진도 4.5의 여진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었다.

총지종은 경주시내에 국광사. 건화사, 승천사, 수계사 등의 사원을 운영 중이다.

특히 건화사는 지붕을 받치는 공포 주변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육안으로도 지진 피해가 확연하다. 통리원은 지진 발생 다음날 각 사원 주교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통리원장이 지역 사원을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수습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진 취약 지구 전 사원에 대한 교육 및 예방 대책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수립하고 사원으로 전파 할 계획이다.

▲ 건화사 기둥을 받치는 공포 주변 균열 발생

경주= 김초랑 기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잠원 햇살 어린이집 수탁

9월 25일 서초구청에서 위탁계약체결

지난 9월25일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서초구청에서 잠원 햇살 어린이집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정사)은 강남구, 서초구 지역에 4개 어린이집을 위탁 경영 중이며,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새로 잠원 햇살 어린이집을 수탁했다.

잠원 햇살 어린이 집은 잠원 레미안 아파트 내에 위치해 잠원동 일대 어린이들을 보육 대상으로 삼는다.

어린이집 원장에는 김선희 선생을 임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원 준비를 마치고 보육을 시작 할 예정이다.

이번 어린이 집 수탁으로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명실 상부한 불교계 대표 사회복지기관으로 거듭났다.

총지종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중원사 헌공 가지 불사 봉행

괴산 중원사가 불사를 마무리하고
헌공 가지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헌공 가지 불사가 원만이 회향하기를 서원합니다.

일 시: 총기 45년 10월 25일 12시
장 소: 괴산 중원사 서원당

불교총지종

동학사 승가 대학원장 일초스님, <화엄경 게송집> 발간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화엄경(80권 본) 39품 게송 뽑아...원문과 현토, 번역

동학사 승가대학 대학원장 일초(一超) 스님이 강원 시절부터 발원해 온 <화엄경 게송집>(민족사 발행)을 출간했다.

이를 기념해 동학사는 승가대학원장 경월 일초스님 편역 화엄경 게송집 출판기념회를 10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출판기념회는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동학사 승가대학과 일초 스님이 걸어온 길, 정엽 스님(동학사 주지) 인사말, 인환 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동국대 명예교수) 효경 스님(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대전 청림회 회장) 선상신(BBS불교방송)사장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화엄경 게송집 출판 동기와 그 의의에 대해, 원욱 스님이 경월 일초 스님(동학사 승가대학원장) 약력 소개가 진행됐다.

일초스님은 <화엄경 게송집>을 부처님 전에 봉정했으며, 제자들이 일초 스님에게 화환을 증했다.

경월 일초 스님은 "출가하기 전, '모든 것은 내 마음 하나에서 이루어진다[一切唯心造]'는 화엄경의 한 글귀에 출가를 결심했던 어린 마음! 僧이 되어 華嚴을 접했을 때 느꼈던 환희로움! 수 십 번 학인들과 논강하면서 이 경을 보니, '기쁘지 아니한가? 가슴이 벅차지 아니한가? 환희롭지 아니한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면서 이 華嚴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한 생은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기쁨에 가득했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이 화엄경 게송만 읽고 독송해도 심오한 화엄경의 내용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모(한국식 오카리나 연주자)씨의 연주후 사홍서원을 끝으로출판기념회를 회향했다.

<화엄경 게송집>은 대승경전 가운데 가장 방대한 화엄경 80권 본의 내용을 시구로 요약하여 표현한 39품의 게송을 모두 뽑아서 원문과 함께 현토하고 번역하여 상·하 두 권에 담아 놓은 국내 최초의 책으로 출간하자마자 화엄경을 좋아하는 독자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엄경은 그 방대한 분량에서도 알 수 있듯 교학뿐만 아니라 실천보살행, 수행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사찰의 주련 등은 물론이고 역대 고승들이 좋아하며 중생들을 계도했던 게송(싯구)들이 대부분 화엄경 게송인데서도 화엄경 게송집 출간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승경전의 정수로 알려진 화엄경(華嚴經)은 불교 사상 일체를 포용하고 있는 경전이다. 심오함으로 말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갖췄고, 공간적으로는 법계(法界)를 다하고, 시간적으로는 삼세(三世)를 다 담아놓은 것이 화엄의 세계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 억 만 개의 별빛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은하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 화엄이다.

일초 스님은 "화엄경의 심오한 세계를 만날 때마다 항상 많은 불자님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던 중, 게송만이라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발간했다고 소회를 밝힌 것처럼 게송을 읽는 환희로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화엄경 게송집을 출간한 것이다.

일초 스님이 온 정성 다해 현토하고, 번역한 화엄경 게송집, 한 게송, 한 게송마다 환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 책을 독송하는 이들도 화엄의 세계에서 법열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긍정의 DNA를 만들어주는 책 월도스님의 '소풍가듯 가볍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이자, 대광사 주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이 신간 '소풍가듯 가볍게'를 내고 10일 오전 12시 출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신간은 '월도스님의 생활법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불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여러 가지 인생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온 스님의 법문을 엮은 책이다.

월도스님은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괴로움 속에서 허망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고단한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소풍 가듯 가볍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안내한다. 우리가 살아가며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에서 사례를 이끌어내 그 조언이 더욱 현실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책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 책을 읽는 동안 끄덕끄덕 공감만 하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가능한 수행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월도스님은 "아이와 어른을 아울러 노인들까지 괴리감없이 공감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친절하게 다가가고 싶었다"며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소풍가는 기분으로 즐거운 축제같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은 마음, 변화, 인연, 지혜, 믿음, 진리, 정진을 주제로 삶의 갖가지 문제들로 괴로움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인생이 마냥 버겁다는 이들에게 냉정하지만 따듯한 조언을 건네고 있다.

부처님 이야기

일곱가지의 아내

『수달장자의 아들 선생에게 시집온 옥야라는 부인이 있었다.

부잣집 딸로 미모가 뛰어난 그 여인은 시집온 지 7년 동안 자식하나 낳지 못하면서도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기지 않고 매양 제집 자랑만 뻔질나게 하고 미인됨을 자처하여 하인 대하기를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다.

하루는 남편이 부처님을 뵙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대왕을 만난 듯 절하고 공경하기를 하늘 사람 대하듯 합니까? 사람이란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인데-」

「여보, 그런 말 마오.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은 참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오. 세상에 부처님 나시기란 우담발화꽃보다도 더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야는 획 돌아서면서

「누더기중, 상거지-」

하고 업신여겼다.

그런데 한번은 옥야가 배에 종기가 나서 심히 고통을 하며 종들에게 그것을 짜도록 명령했으나 아직 덜 곪아 터져 나오지 못하므로 화가 나서 종들을 개 패듯 하였다.

마침 그때 부처님께서 그 곳을 지나가시다가 들렀다.

종기를 짜던 옥야는 처음으로 부처님을 보았는데 무언지 모르게 친정 부모님과 같이 마음이 즐겁고 다정해 보였다.

사실 옥야는 너무 극성을 부려 시가집에서는 바깥 종까지도 모두 두려워하여 고독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부처님이 오시니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부처님 잘 오셨습니다.」

「옥야는 내 말을 들으라. 여자는 제 얼굴 잘난 것만을 자랑삼아 교만하면 못쓴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하는 행위도 아름다워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에겐 3장(障) 10악(惡)이 있다. 어려서는 부모, 커서는 남편, 늙어서는 자식을 따라야 하고 나면서부터 부모의 기쁨을 못 받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혼인 때 부모님께 걱정을 드리고 남을 겁내며, 부모님과 헤어져 살고 몸을 남의 집에 맡기고 임신의 고통을 하게 된다.

또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받고, 항상 남편을 섬겨야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약간 얼굴 잘난 것 가지고 세상 사람의 노리개 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부처님은 크게 감동을 주어 그 여인의 여인답지 못한 마음이 거꾸로 뒤집혀지기 시작했다.

「어떤 것을 진정한 여자라고 하는가. 세상에 일곱 가지 여자가 있다.

첫째는 사람을 죽이는 여자니, 더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업신여기며, 정절을 지키기 않고 절조 없는 생활을 하는 여자다.

이런 아내의 남편은 모든 것을 참고 참다가 드디어 그것이 병이 되어 목숨을 단축시키고 만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을 사람을 죽이는 여인이라 한다.

둘째는 도둑과 같은 여자이니,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남편의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며 남편이 번 재산을 몰래 때 내어 스스로 부를 축적한다. 그러다가 남편이 벌이를 잘 못하게 되면 그는 그가 몰래 빼낸 돈으로 허세를 부리며 남편을 휘어잡는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도둑과 같은 여자라 한다.

또 셋째는 주인과 같은 여자니, 게을러 일하기 싫어하고, 말손이 거칠며 남편을 종처럼 부려먹는 여자다.

대개 이와 같은 여자들은 다 행실이 나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여자로서 일책 과부가 되기 쉽고 현세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도 좋은 과보를 얻지 못한다.

또 몸속에 좋지 않은 병이 생겨 그것이 겉으로 터져 나오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추잡하다 대하기를 싫어한다.」

이때 옥야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며 와-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마침 미처 짜려다 짜지 못한 종기가 툭 터지며 누런 고름이 한량없이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 저는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옥야야, 괴로워하지 말라. 너의 마음 속마음에 맺혔던 모든 부정이 지금 네 몸의 종기가 터져 나오듯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다면 그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듯 그대 마음도 또한 그러하리라.」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럼 넷째 부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어머니와 같은 여자니, 항상 남편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주인의 재산을 내 몸같이 아끼고 지키는 여자다. 다섯째는 누이동생과 같은 여자이고, 여섯째는 친구와 같은 여자이며, 일곱째는 종과 같은 여자이다. 남편을 섬김에 정성을 다하고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의리를 지키며, 또 부끄러워 할줄 아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여자, 마치 오랫만에 만난 친구와 같이 다정히 맞아, 피로를 풀게 하고 정절을 갖추어 남편을 존경하는 여자, 남편이나 시부모를 진정으로 섬기고 일가친척 이웃에 대해서도 예의를 잊지 않고 문안드릴 수 있는 여자, 항상 웃는 얼굴로 화염을 보이지 않고 나와 남을 위해 끊임없는 공덕으로 착한 복덕의 씨앗을 뿌리는 여자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여자들은 현세에서 여러 가지 복덕이 충만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할 것이고 내생에는 한량없는 복보(福報)를 받아 인천 3계의 공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석자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전까지는 앞의 세 여인과 같은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뒤의 네 여자와 같이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였다.』 그로부터 3년, 수달장자의 집에는 또 다른 경사가 생겼으니, 며느리가 착해지자 가산이 늘어난 외에 기다리던 옥동자를 낳았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애쓰던 여인이 마음씨가 착해지면서 두 딸과 한 아들을 낳으니, 수달장자의 집은 물질과 정신 그 어느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한다.

인과는 털끝만큼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비록 받는 시기가 꼭 같지 않아(순현(順現), 순생(順生), 순후(順後) 부정(不定))죄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그 마음이 변하면 그 생활도 따라 변하므로 죄복보응이 현실 생활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사실 설화는 불교의 여인상으로 부덕(婦德)의 정사를 밝힌 법문이지만 불교의 인과윤리를 여실히 드러내 보인 설화이기도 하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곧 불교다. 출처=옥야경<玉耶經>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복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불교의 선정 51 생활 중의 정념 8

정념(正念)의 효과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정념으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정념은 한 마디로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경전에 묘사된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원숭이와도 같이 끊임없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바쁘게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정작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다. 때로는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화를 당하기도 한다.

이 사회의 모든 사건 사고는 정념을 하지 못하고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다가 발생하는 것들이다. 우리 마음에 탐진치와 더불어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언행 또한 실수할 것이 없다.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생각에 휘둘리게 되는 것은 곧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정념을 지니는 것은 흐르는 물밑에 버티고 선 바위에 비유되기도 한다. 물살이 세든 약하든 물이 흙탕이든 깨끗하든 아랑곳 하지 않고 의연히 버티고 선 바위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동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가 정념으로서 굳건히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세파가 아무리 거칠고 변화무쌍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정념을 무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념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의 생각과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서 자기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깨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념을 지닌 사람은 차 한잔을 마시면서도 차를 우려내고 따르며 잔에 옮겨 마시는 모든 동작에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음미도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차 맛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차를 마시면서도 지나간 일을 걱정하고 앉았거나 해야 할 일 때문에 마음을 쓰다보면 차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듯이 보여도 실은 생각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동시에 3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한 가지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는 것이 지겨워 빨리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고 싶어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그 시절을 다시 그리워한다.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애들이 어릴 때는 같이 놀아주고 성장을 지켜봐 줘야 하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애들에게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맞벌이를 한답시고 애들에게 소홀히 하다가 애들이 큰 다음에야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어릴 적 같이 못 놀아 준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때를 지켜보지 못하고 지나 놓고는 그 시절을 후회하고 닥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하면서 세월을 보낸다. 그래서 나온 말이 조주 선사의 '정간백수자(庭間栢樹子;발 밑의 잣을 보라)'라는 고사이다.

정념을 지닌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에 삶의 질도 거기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 멍하니 있는 것이 정념이 아니라 생각생각을 분명히 하고 지금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망념에 끄달려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는다.

떨어지는 물방울, 나뭇잎사귀의 흔들림에도 우주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념을 지닌 자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아름다움을 매일각 마다 명료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정념인 것이다.

정념은 번뇌를 제거하여 열반에 이르게 한다

불교의 수행은 지(止)와 관(觀)을 닦는 것으로 정념은 지와 관을 성취하게 하며 수행자로 하여금 선정에 깊이 들어 지혜를 내관할 수 있게 한다. 사념처의 모든 방법은 지와 관의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념처를 닦는 것은 곧 지와 관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사념처와 지관의 수행은 불가분의 것이다.

정념은 마음을 수행의 대상에 집중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선정의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이때 정념은 마치 문지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시하고 보호하여 마음이 수행의 대상에서 멀어져 망상 가운데에 떠다니지 않게 한다. 동시에 바깥에서 잡념이 들어와 마음을 교란하게 하는 것도 막는다. 이것이 바로 지이다.

또한 정념은 수행 과정에서의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며 살피게 하여 그것의 본질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게 하여 지혜를 드러내게 하는데 이것이 관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온갖 유혹과 욕심, 사견 등에 휘둘리게 되는데 이때 정념은 차를 모는 운전기사와 같다. 도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안전운행을 할 수 있지만 전날 밤 술을 마셨다거나 수면부족으로 몽롱한 정신상태라든가 머릿속이 잡념으로 가득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

정념은 맑은 정신으로 운전에 집중하는 기사처럼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의 본성을 통찰하여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다.

정념은 삼루(三漏)를 없앤다. '루'라는 것은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지혜가 부족하여 본래 청정한 자성이 더러워져서 번뇌가 일고 청정한 지혜가 흐려지는 것을 말한다. 삼루라는 것은 여기에 3가지가 있다는 의미인데 욕루(欲漏), 유루(有漏)와 무명루(無明漏)가 그것이다.

욕심이 끝이 없이 일어나 늘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욕루이다. 지혜가 부족하여 욕망을 쫓으며 업을 지어 괴로움을 받는 것이 유루이다. 무명루라는 것은 마음이 겹겹의 어리석음에 덮여 끊임없이 번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음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속박에 얽매인다.

그 속박, 즉 번뇌의 근원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정념을 갖추게 되면 번뇌의 근원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변환할 수 있다. 정념의 광명이 비추게 되면 번뇌의 어두움은 사라진다. 우리가 해탈을 하고 열반을 얻는 것은 무수한 번뇌를 단절하고서야 비로소 획득되는 것으로서 번뇌가 없다면 해탈도 없다.

불교에서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투성이인 인간으로서의 몸을 받았을 때 더욱 정진하여 보리를 얻어야 한다.

사념처 수행은 열반의 유일한 길

세상만물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이 제행무상이다. 우리도 제행무상의 진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난 이상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다음에도 업에 따라 육도윤회를 한다고 한다. 불교의 최종 목표는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이고득락(離苦得樂)'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괴로움 중에서도 생사의 괴로움이 가장 크다.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고득락은 불가능하다. 정념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온갖 번뇌를 없애주며 죽음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혼미한 감정에서 해탈하게 하며 생명의 실상을 통찰하게 한다. 정념에 의하여 생사일여의 진리를 바로 볼 때에 이고득락이 가능해진다.

불교에서는 임종 직전의 찰나의 한 생각이 내생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한다고 믿는다. 살면서 비록 많은 선행을 했을지라도 임종 직전의 일념이 건전치 못하면 다음 생에서 괴로움을 초래하게 된다. 비록 수행을 하고 많은 복덕을 지었더라도 임종 직전에 어떤 계기로 진심을 내거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삼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는 동안에 큰 선업은 못 지었더라도 임종 직전에 불법의 이끌림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지극한 참회로 그 순간을 맞는다면 좋은 곳에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맑은 정신과 정념을 지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임종 직전의 정념이 중요하지만 이는 평소에 닦아 놓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평소에 정념 수행을 꾸준히 한 사람이라면 임종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동요되지 않고 정념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평소에 그런 수행이 안 된 사람이 임종 직전에 선념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념 수행은 살아서도 번뇌에 이끌리지 않고 괴로운 삶을 살지 않게 하지만 궁극의 목적은 생사를 초월하여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념을 기르는 것은 세계의 실상을 바로 보고 번뇌의 원인을 통찰하여 집착과 진에,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사념처를 닦는 것은 곧 정도에 이르는 것이며 정도는 곧 중도이니 이것이 바로 팔정도이다.

사념처 수행이 있어야 팔정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며 팔정도를 제대로 닦은 다음에야 열반을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념처는 곧 열반의 문턱과 같은 것이며 기초가 된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청정하게 하며 근심과 슬픔을 떠나게 하며 괴로움과 번민을 멸하고 정도와 열반을 성취케 하는 유일한 길이 사념처'라고 하셨다. 그만큼 사념처를 통한 정념 수행은 불자들이 가야할 유일한 길이며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평생을 두고 정진하여야 한다.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의 안락을 위해서도 정념 수행은 필요하지만 이 생도 저 생도 다 버린 육도윤회의 해탈을 위해서도 사념처를 통한 정념 수행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

▲ 효강 종령 영상 법어

▲ 인선 통리원장 봉행사

▲ 경품 추첨

▲ 경연팀 전체

▲ 범어사합창단

▲ 관음 합창단

▲ 범어사 금강암 합창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나라,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헌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 층 문의. 02-445-2326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10월 1일 부산동해중학교 대 운동장

▲ 동해중 법인실에서 환담을 나누는 귀빈들

▲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스님(우)과 수석 부회장 무원스님(좌)

▲ 대구 금강합창단

▲ 금상 법어사 합창단

▲ 은상 혜원정사 합창단

▲ 동상 진각종 유가합창단

▲ 장려상 관음사 환희합창단

▲ 장려상 범어사 금강암 합창단

▲ 서울 만다라합창단

▲ 진각종 유가 합창단

▲ 혜원정사 합창단

▲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 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밀엄정토의 기운으로 수행과 정진에 평생의 길을 묻다.

총지종 제2차 연수단 일본 불교 체험

실보사 보현 전수

▲ 곤고부사 참선당 안쪽에 있는 석정(일본 국보)

이번 총지종 전수 불교 연수단은 요시노/오미네, 구마노산잔, 고야산 3곳의 영지와 나라와 교토에서 이어지는 일본 불자들의 참배길에 정통밀교 총지종 전수14명도 발을 내딛었다. 세 곳의 영지(靈地)는 일본 종교와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기이산 영지와 참배길' 2004년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 길의 첫걸음은 해발1000m의 여덟 봉우리가 마치 연꽃형상을 하고있다는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고야산(高野山)이다. 헤이안(平安)시대 819년 구카이(空海)가 수행한 곳이자 眞言宗(진언밀교, 신곤밀교)이 태동한 곳으로 과거 7000개 이상의 사원이 존재했던 거대한 사원이자 불교도의 메카였다. 1200여 년간 일본 불교의 중심지답게 현재에도 117개의 사원이 참배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원 곤고부지(金剛峯寺)는 일본 전역에 3,600여개 절이 소속된 진언종 총본산이다. 고야산 최대 목조건물인 곤고부지 안으로 들어서면 석정(石庭)이라 부르는 넓은 모래밭 뜰에 여러 바위들이 용처럼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고야산 개산조 코보(弘法)대사 구카이(空海)가 모셔진 오쿠노인 고뵤(사당)로 가는 참도를 걷다보면 오륜탑파가 늘어서있어 다시금 진언종의 성지임을 느끼게 된다. 오륜탑파의 아래엔 지수화풍공의 범어 아바라하카가 쓰여 있어 가는 발걸음 닿는 눈길마다 반가움이 서린다. 엄숙함이 흐르는 참도에 신성함을 덧입힌 듯 지장보살과 작은 사당들 그리도 빽빽한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이 장관이다. 고야산의 117개의 절중 52개의 절에서 쇼쿠보(템블 스테이)를 허용하고 있다. 혜광원(惠光院)에서 진언종의 중요한 명상수행인 아지칸(阿字觀)명상을 체험했다. 재료본연의 맛을 살린 정진요리(한국의 사찰요리)를 먹고 반야심경 사경을 한 후 고야산의 깊은 고요에 잠들었다. 다시 눈을 뜨고 새벽예불 스님의 독경소리를 들으며 아지칸(阿字觀)명상을 한 후 그날의 안녕이나 소원을 호마하는 호마의식에 참례한 후 고야산을 떠나 일본의 옛 수도였던 나라(奈良)로 향한다.

▲ 오쿠노인 참배로

▲ 혜광원 본당에서 열린 아자관 수련

일본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601~607년에 세워졌다는 일본최고 목조건물인 호류사(法隆寺)에서 안정감이 단연 돋보이는 금당(金堂)과 5층탑을 고대 그리스 영향을 받은 회랑을 따라 돌아본다.

중국의 불교 건축 및 가람 배치 양식이 일본 문화에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예술사적 의미가 있고 중국의 불교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종교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아스카 시대부터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건축술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이룬 일본불교의 수용의 자세가 느껴진다. 고구려 담징과 연관 깊은 금당 벽화에 눈길이 머물고 오롯이 서있는 백제인이 건너가 제작했다는 목조 '백제관음상'앞에 발걸음이 멈춘다.

▲ 동대사 대불전

멈춘 발걸음을 다시 돌려 찾아간 일본불교 화엄종(華嚴宗)의 대본산인 동대사(東大寺)는 745년 쇼무왕이 료벤스님의 화엄경 강연을 듣고 경에 심취하여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728년 세워졌다. 창건 당시는 금종사라 이름 지었으나 후에 동대사로 바꾸며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시작했다. 앉은키 16m의 대불의 완공 이후로도 강당, 종루, 탑등이 세워져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다한다. 전란으로 사찰 전체가 전소되지만 1692년 축소된 형태로 재건되었다고는 하나 비로자나불 손바닥에 성인 14명이 올라갈 정도의 크기니 그 위용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어우러진 백제와 신라의 기술과 예술미에 어깨가 슬쩍 올라간다.

▲ 청수사 부타이(본당) 전경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京都)의 첫 사원은 기요미즈데라(清水寺)가 열어줬다.

마루야마코엔에서 언덕과 많은 계단을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으며 780년 나라에서 온 엔친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벽에서 10여미터 돌출되어 있는 부타이라 불리는 본당의 툇마루 아래는 못을 쓰지 않고 172개의 나무기둥이 받치고 있으며, 교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그 아래 '성스러운 물'의 사원 이름답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작은 폭포가 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끊임없이 재촉하고 있다

그 북적임을 뒤로 한 채 난젠지(南禪寺)의 호조정원(方丈庭園)과 료안지(龍安寺)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와 나무와 이끼 등으로 산수의 풍경을 표현하는 가레산스이(枯山水)식 정원을 거닐며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 녹아드는 마음자리를 바라보았다. 산수풍경뿐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한 정원에 철학의 길 위를 걷고 있음이 실감이 났다.

▲ 호조정원

묘한 미소가 닮은 고류지(廣隆寺)의 '목조미륵반가사유상'과의 짧은 만남과 긴 여운을 간직하며 신영보전의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시대의 다양한 불상과 불보살들과 호법신장 조각들의 배웅을 받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본다.

오사카(大阪市) 덴노지구에 있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불교진흥을 위해 건립한 시텐노지(四天王寺)는 건립 당시부터 경내에는 가난하고 병든 이에게 약을 주거나 치료하고, 홀로된 노인이나 아이들을 수용했던 '세야쿠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서민들의 구제에 노력하는 등 일본 사회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일까? 사원 내 에서는 벼룩시장이 상시 열리고 있었다. 불교의 참뜻을 엿본 것 같은 느낌이 애틋하게 느껴진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계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계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이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 개회식 개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불자들의 푯대"

태국 · 스리랑카 등 20여개국 500여 명 참석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서울총회 개회식이 9월 27일 오후 4시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판 와나메티 WFB 본부회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개회식은 1부 개회불사와 2부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 봉행위원장 회성 정사(진각종 현정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환영사를 통해 "1958년 제5회 방콕총회에 한국불교를 대표해 종조인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 참석한 이래 58년 만에 서울총회를 유치하고 세계의 고승대덕과 선지식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된 것은 시절인연"이라며 "이번 총회의 주제인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바른 믿음과 참 깨달음으로 자주적 위상을 확보하며 안팎이 없고 가림이 없는 전법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게 함으로써 전 인류가 잘 사는 지구촌 공생을 위한 과제이자 불자들의 푯대가 되어야할 명제"라고 밝혔다. 이어 판 와나메티 본부회장은 대회사에서 "불교의 교리가 세계화의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불교의 교리로 어떻게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을지 총회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의 불교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와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중국불교협회장 심청 스님, 코미네 이치인 전일본불교협회장, 대만중국불교협회장 원종 스님, 라닐 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 번다리 네팔 대통령, 세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등이 축사를 전했다.

축사에 이어 WFB 본부에서 불교발전과 종교화합에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대만중국불교협회장 등을 종교특별고문으로 추대했다. 또한 진각종과 일본불교협회가 발전기금을 WFB 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진 개막공연은 퓨전음악그룹 '황진이'와 타악그룹 '카타'가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LED 조명의 화려함이 어우러진 퓨전무대를 선보였다.

한편, 오전에 열린 WFB 대표자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EXCO) 신임 이사로 진각종 교무국장 수각 정사(전 WFB 재무분과위원장) 등 8명과 부회장 14명을 선출했다. 이어진 WFB 전체회의에서는 본부회장에 판 와나메티 회장을 재추대하고, 오계수지 상임위원장에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를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7곳이 회원으로 새롭게 등록됐다.

천태종, 대중들 위한 새로운 '묘법연화경' 편찬

춘광스님의 '행복하고 행복하여라' 행복을 이끄는 나침반되길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스님)이 최근 봉안용·독송용과 별도로 대중들이 〈묘법연화경〉을 직접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새 〈묘법연화경〉을 편찬, 간행했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이 편찬을 맡은 이번 〈묘법연화경〉은 기존 〈현토 역주 묘법연화경〉 본을 토대로 경전의 이해를 돕고자 번역문과 주석을 다듬었고, 각 품마다 개요를 덧붙였다.

또한 원문은 '고려대장경'본을 위주로 했지만, '대정신수대장경'본과 '간경도감'본 등 기타 판본을 참조해 교감했다. 이체자의 경우는 정자 표기를 채택했고, 현대 통용되는 뜻과 다를 경우는 의미에 맞는 글자를 택했다.

역주에서는 불교용어 풀이와 내용 해설을 담았다. 내용 해설은 천태 지의의 〈법화문구〉에 의거해 천태적 관점을 반영하되 난해하거나 번쇄하지 않도록 간략히 했다. 또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소담한 인연이 되길 바라며 '행복하고 행복하여라'라는 칼럼집을 편찬했다. 수년 간 '금강신문'에 게재했던 원고를 수정, 보완한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눠져 59편의 법문을 싣고 있다.

스님은 사회를 불신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선과 거짓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주며 '내가 서있는 자리에 그늘이 드리웠다고 세상 전체가 어두운 건 아니라는 걸, 동전의 양면처럼 고통의 틈을 헤치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국가대표 선수의 종교행위, 사회적 합의 필요

종자연,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대표 기도세리모니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얼마 전 끝난 리우 올림픽 축구 예선에서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골 기도 세리모니가 공영방송을 통해 중계된 바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개인의 종교자유이니 문제없다는 주장과 공인으로서 공적 공간에서는 개인의 과도한 종교적 표현은 자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양존하고 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스포츠 선수의 종교행위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9월 8(목)일 13:30 - 17: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대표 기도세리모니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리우 올림픽이 끝난지 채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식지 않은 만큼 시민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번 시민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대하여 정재곤(전 중앙대교수, 한국교회법학회 사무총장), 이창익(서울대학교 교수), 김형남(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변호사), 백찬홍(에코피스아시아 운영위원장), 곽선우(전 성남FC 대표,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선다.

좌장은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125차 종회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판결따라 거취 결정"

10월 5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재적의원 54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5차 임시중앙종회(종회의장 설운스님)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 스님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판결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소송의 부당함이 법원 결정으로 판가름 나면 혜일스님에게 책임을 묻고, 인용된다면 저 역시 그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스님은 법원에 징역확정으로 총무원장 선출이 무효라며 총무원장 도산스님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도산 총무원장은 종회에서 거취표명을 통해 "먼저 부덕한 저 자신이 초래한 행동의 결과로 종단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자책과 참회를 드린다"며 "부족한 저를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으로 선출해준 종도 여러분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포교와 수행으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행자들과 스님들의 말씀에 귀의하여 보다 참되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불자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참회를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선관위원장의 각급후보자 자격심사를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과 지방종회의원 선거에 국한한 자격심사로 규정하는 종무원법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종헌·종법상 서로 상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미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종헌·종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앙종회법에서 추천직의원4명의 추천권을 중앙종회의장과 호법원장이 동수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며,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교육기금환수를 거부 중인 전 종회의장 혜공 스님에 대한 징계와 교육기금 환수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울산 지역 조계종긴급구호단 선발대 파견

남부 지방을 할퀴고 지나간 '태풍 차바' 피해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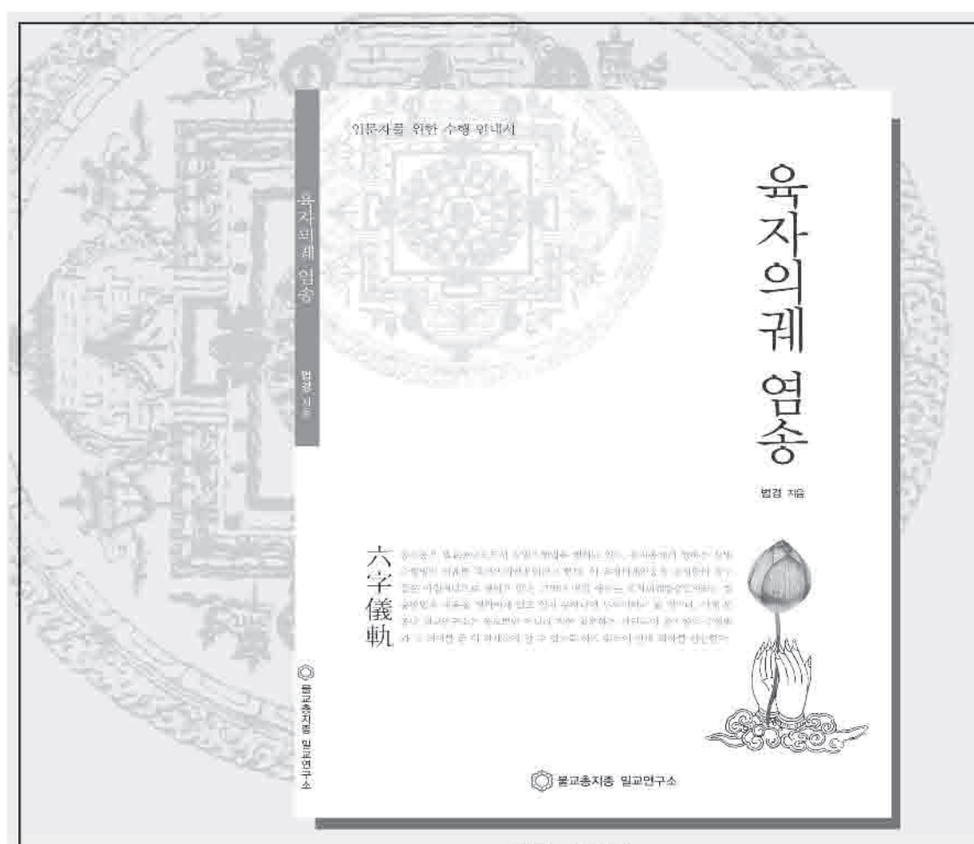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6일 오전 10시 울산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불교조계종긴급구호단(총재 자승스님) 선발대를 급파했다.

국내외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는 재단은, 지난 5일 남부 지방을 강타한 제 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속 집계되자 총무원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호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조계종긴급구호단 선발대 파견을 결정했다.

재단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두려움이 만연한 가운데, 피해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며 선발대 파견 이유를 밝혔다.

사회복지재단 손상원 부장을 팀장으로 울산 현지 인력 10여명과 결합하는 조계종긴급구호단 선발팀은 울산 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 구호 활동의 규모와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태풍 곤파스와 볼라벤 등 태풍, 홍수 피해 발생시 복구활동과 응급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며 국내 재난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쳐온 재단은 "울산광역시 등 공공기관과 사찰을 중심으로 울산지역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오늘 파견된 선발대의 현지 보고에 따라 추후 구호지원 계획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라며,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민간 차원의 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범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다.

※ '육자의궤 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총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심층밀교, 수행법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유물로 보는 밀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호

명 칭 : 송광사금강저 (松廣寺金剛杵)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신평리)

▲ 송광사금강저

금강저란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불교 도구이다.

저(杵)는 인도의 고대 무기 가운데 하나로 제석천이 아수라와 싸울 때, 코끼리를 타고 금강저를 무기로 삼아 아수라의 무기를 쳐 부순다고 한 신화에서 유래되었다. 손에 쥘 수 있는 모양으로, 쥐고 있으면 묵중하고 엄숙한 기분이 감돌아 온갖 잡념과 방해물을 굴복시켜, 부처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송광사 금강저는 양끝이 3개의 가지가 있는 화살촉모양으로, 손잡이에는 손바닥이 닿는 부분이 볼록하게 나왔다. 손잡이 양끝은 4잎의 연꽃무늬를 양각함으로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29. 수주수(數珠手) 진언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옴 아나바제 미아예
싯디 싯달제 사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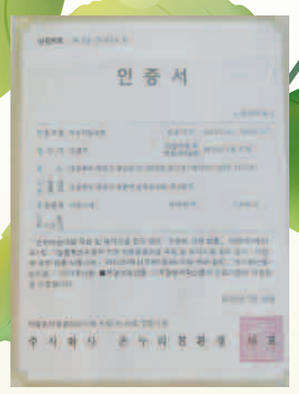
만약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속히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내용참조: "불교총전" 업감연기편 199p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kg 10,000원 무료배송

7월 25일부터 출하!!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성분 및 효능

●시력개선 효과 ●면연력, 기억력 강화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배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방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사원 054-333-7950, 지현 010-5531-795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한글날, 조선 활자의 신비 속으로

활자, 살아 움직이는 글자
활자의 나라, 조선展
6월 21일~11월 13일, 상설전시실 1층 고려 3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1926년 11월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를 주축으로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해 행사를 거행한 것이 한글날의 시초인데,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1932, 1933년에는 양력 10월 29일에 행사를 치렀으며, 1934~45년에는 10월 28일에 행사를 치렀다.

10월 9일로 한글날이 확정된 것은 1945년이다. 근거로 삼았던 것이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인데, 말문에 적힌 날짜에 근거해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것이다.

한글날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6월 21일 시작한 '활자의 나라, 조선' 전은 관람객의 인기에 힘입어 전시가 두 달이나 연장됐다. 11월 13일까지 이어질 '활자의 나라, 조선'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 16세기 명나라 판본에서 유행하던 딱딱한 인서체를 본떠 교과서에서 만든 금속활자

조선 제작 활자 82만여 자 최초 공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이번 테마전시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국가 제작 활자 82만여 자의 전모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 활자들은 대부분 17~20세기 초 중앙 관청과 왕실에서 사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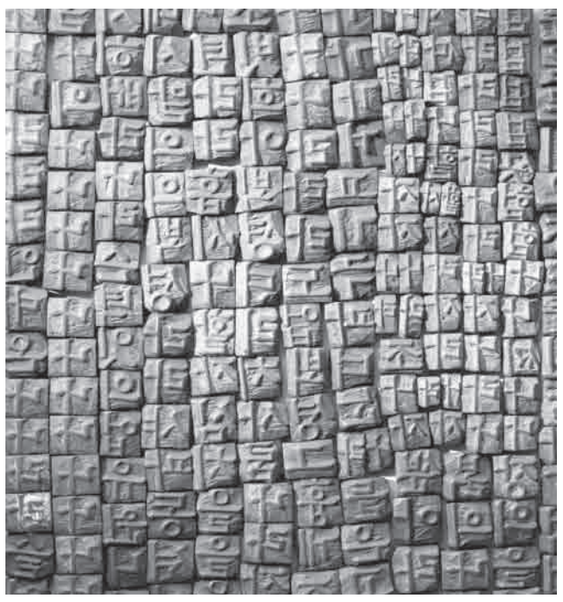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인쇄 출판을 담당하는 관청인 교서관 등에서 국가나 왕실에 필요한 책을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있고, 이 활자로 찍은 책들도 대부분 남아 있다. 한 왕조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관리한 활자가 이처럼 많이 남아 있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50만여 자에 달하는 금속활자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글자체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제작 기술도 정교하여 예술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검박함을 미덕으로 여겼던 유교 국가 조선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예술품을 만드는 대신, 금속활자와 이것으로 인쇄한 책에 조선시대 예술과 기술을 집약시켰던 것이다.

많은 활자가 체계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 세계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밖에 없다. 금속활자의 경우 서양의 금속활자도 이처럼 체계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예는 없다.

근대 이전에 제작한 활자는 중국과 일본에도 남아있지만 금속활자는 중국에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활자 인쇄술을 가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금속활자 3만여 자가 남아있을 뿐이다.

목활자는 중국과 일본에도 상당수 남아 있지만 제작 시기나 활자의 규모, 품질 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의 수준을 따를 수 없다고 하니 활자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 한글 목활자 18~19세기 본관 3381, 3382

국가와 왕실의 보물이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금속활자는 유교 통치를 위해 필요한 책이나 통치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책을 간행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1403년(태종 3) 태종이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만든 이후의 통치자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자의 활자를 만들었지만, 임진왜란 이전 조선의 활자는 15세기에 주조된 한글 금속활자 30여 자 외에는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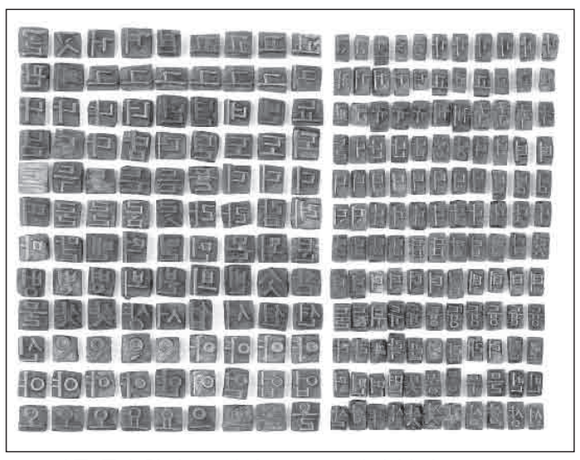
활자, 살아 움직이는 글자

'활자(活字)'는 살아 움직이는 글자라는 뜻이다. 글자 조각들을 옮겨가며 여러 내용을 인쇄하는 데 거듭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활자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활자는 11세기 중국 송나라에서 필승(?~1051)이 처음 발명했지만, 흙을 구워 만든 탓에 실용화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활자의 재료를 금속으로 대체해 활자 인쇄를 본격화한 것은 고려(918~1392)였다. 하지만 고려는 한자라는 문자의 특성이나 서구와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고 근대를 여는 혁신적인 매체를 선도하는 영예를 구텐베르크(1398?~1468)에게 내주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입장의 차이에 주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왕실 주도로 책이 만들어진데 반해 서구에서는 출판의 영역이 민간으로 퍼졌다는 것이다. 대량화, 근대화 물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왕실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견해는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에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선(1392~1897)은 다양한 책들을 인쇄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발명한 금속활자 인쇄를 발전시켰다. 통치를 위해 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활자를 제작했다. 1403년(태종 3)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만들면서 태종이 한 말에서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책을 널리 읽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어 중국의 서적이 좀처럼 오지 않고 판각본은 훼손되는 데다가 또 천하의 온갖 서적을 다 판목으로 새기기는 어렵다. 내가 구리쇠를 부어서 활자를 만들어 놓고 책을 얻는 대로 인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널리 전파한다면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다."



▲ 한글 금속활자 15세기, 17~18세기 본관 3368, 3369

태종의 이러한 생각은 조선의 왕들이 금속활자를 제작하고 책을 간행하는 일을 토이에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주로 한자 중심으로 활자가 만들어졌지만 한글 활자의 수 역시 무시 못한다. 왕세자 교육, 백성 교화 등에 한글 활자를 사용했던 것.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글 금속활자 50여 자와 한글 목활자 1만 3천여 자가 남아있다. 이 가운데 금속활자 30여 자는 15세기에 만든 활자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이다. 1455년 강희안의 글자체로 만든 을해자로 인쇄한 <능엄경언해>에 쓰인 을해자 병용 한글 활자체이다. 각 시대별 의미를 곱씹으며 활자들을 살펴본다면 조선 인쇄술의 뛰어남에 더욱 매료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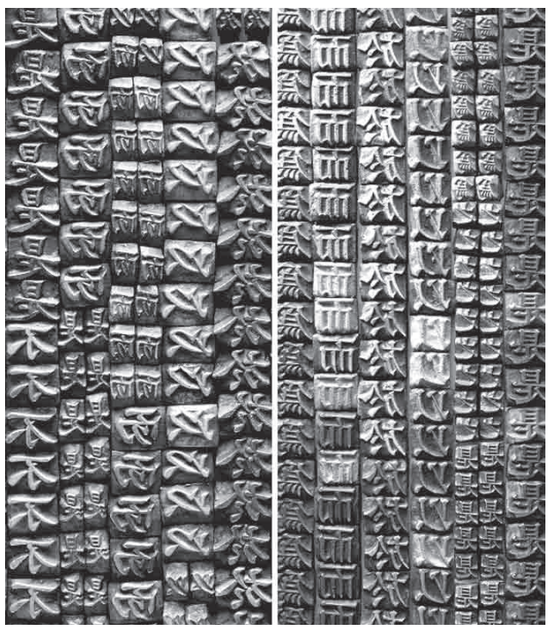
7개 주제로 활자 의미 조명

이번 전시는 활자나 책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전시 방식을 탈피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를 7개 주제로 나누어 소개함으로써,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사에서 활자의 제작과 사용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활자 정리와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고증되지 않은 활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활자들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전시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정조가 정리자(整理字)를 만드는 과정에 참고용으로 수입한 목활자를 처음 공개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 활자는 청나라 궁중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13세기에 위그루 문자로 만든 활자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이다.

활자보관장 전모 첫 공개

활자와 함께 전해 오는 활자 보관장들의 전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장들을 수리 복원했으며, 그 결과 장의 제작연대와 활자 보관방법 등을 밝힐 수 있었다. 3종의 장 가운데 위부인자(衛夫人字)[갑인자(甲寅字)의 별칭]은 나무 나이테 분석 결과 17세기에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선시대 연대를 알 수 있는 목가구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이다.



▲ 임진자 18세기 본관 3359, 3360, 정리자 18~19세기 본관 3364, 3365

정리자(整理字)를 보관했던 장에는 안쪽 깊숙한 곳에 소목장(小木匠) 이름과 제작연대가 써있어, 이 장이 1858년(철종 9)에 정리자를 다시 주조할 때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활자장들의 서랍 이곳저곳에 나온 기록과 조선시대 활자의 수량을 기록한 목록인 자보(字譜)를 대조하여 활자 보관 순서와 방식을 알 수 있었다. 당시 활자들은 한자자전(字典)과 달리 부수를 줄여,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획수가 아니라 자주 쓰는 글자와 그렇지 않은 글자로 나누어 보관했다. 이런 방식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조선시대 활자를 다루던 사람들의 독창적인 방식이다.

또한 여러 개의 서랍을 끼우는 방식의 활자장은 중국이나 일본의 활자 보관 용기와도 다를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찾지 못할 정도로 독특하다. 활자장의 설계 역시 당대 책을 인쇄하던 이들이 고안한 그들만의 독특한 활자 분류 보관 방식에 따라 특별히 고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시장 한 가운데 8×1.5M의 면적에 활자를 보관했던 옛 서랍에 넣은 활자 5만여 자를 펼쳐, 조선이 '활자의 나라'였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의 의미와 활자장 조사, 복원 과정을 보여주는 영물실도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를 활용한 사자성어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3D 프린트로 출력한 활자 복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신비한 '활자'의 세상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활자의 나라, 조선' 展. 놓치지 말자.

강지연 구성작가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엮음 : 법경 종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불교총지종 / 인쇄 : 동림기획
면수 : 250쪽 / 법보시 가격 :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02)552-1080~3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서 원 사 항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2. 사업 원만 발원
3. 취업 원만 발원
4. 건강 원만 발원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6. 학업 및 수능 시험 원만 발원
7. 업장 소멸 발원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10. 참회 발원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14. 지혜 총명 발원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지난10월 1일 종립 동해중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를 성원해 주신 불자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동참해 주신 부산 불교 합창단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정통밀교 불교 총지종은 생활불교와 진호국가불사에 더욱 매진 수행하여

민족의 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불교 총지종 통일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 인 선 / 운영위원장 수 현 합장